

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조선인민군 어구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



1 번 에 서 계 속

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어구종합공장에서 전문수산업자들은 물론 심과 해안연선에 주둔하고있는 구분대들의 수산부업에 필요한 여러가지 어구들을 마음먹은대로 뿔뿔 생산하여 충분히 보내줄수 있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이

공장은 나라의 수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할수 있는 보배공장, 후대들에게 물려줄 귀중한 재부, 큰 밀천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.

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들과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해 좋은 일도 하나 해놓았구나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다고 하시면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

도대들이 하나하나 쌓아지는것을 볼 때가 제일 기쁘다고, 앞으로 군인들과 인민들의 식탁에 문고기가 풍족하게 오르는 그날 어구종합공장을 건설하던 나날을 긍지높이 이야기하자고 말씀하시였다.

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어구종합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규모가 큰 종합적인 어구생산

기지를 일떠세운 당의 의도를 명심하고 생산정상화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림으로써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오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.

조선인민군 어구종합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공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

맞게 훌륭히 일떠세워주시고 공장에 불멸의 명도자욱을 새기시며 대해같은 은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면서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여 황금해력사창조에 적극 이바지해갈 충정의 결의를 다지였다.

본사정치정보단

